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코로나유행 꺾였다...감염재생산지수 0.91 '감소세 전환'

감염재생산지수 0.91...감소세로 전환
주간 위험도는 5주째 '매우높음' 기록
중환자실 가동률 60%대...“변이 주의”
사망자 이번 주, 위중증 다음 주 정점
“방심 위험...엔데믹, 가야 할 길 남아”

코로나19 전파력이 11주만에 1.0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유행이 꺾이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당국은 위험도를 '매우높음' 단계로 유지했다.

병상 가동률 등 의료 대응 부담이 여전히 높고 재조합 변이 출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당국은 '엔데믹'(종료병)에 도달하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5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은 3월 5주 위험도를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주간 위험도는 지난 3월 1주부터 5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했다. 유행 상황을 보면 3월 5주 국내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214만2503명, 일평균 30만 6072명으로 전주 대비 12.9% 감소했다.

전파력을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는 직전 주 1.01에서 0.91로 감소해 11주만에 1.0 미만으로 감소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0 미만으로 내려가면 유행 확산이 감소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 이 단장은 “확진자 수는 정점을 지나 하강 국면에 들어선 게 맞지만 재원 중인 중증 환자가 여전히 많고 아직까지 의료 대응 체계에서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병상 가동률을 보면 중환자실의 경우 62.8%, 준-중환자실은 69.0%다. 비수도권의 경우 중환자실 가동률이 70%에 달한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에서는 3월 5주 주간 위험도에 대해 재조합 변이 출현을 우려했다.

최근 대만과 태국, 영국 등에서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재조합된 변이 'XE'가 확인됐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XE의 경우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높을 수 있다는 영국의 초기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밖에 XD, XF 등 전 세계적으로 신종 변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단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 및 사망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위험군은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완만한 하강 국면이지만 성급한 판단과 방심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의미하는 '엔데믹'과 관련해 “엔데믹은 코로나19가 퇴치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되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소강 상태로 진입해야 하고 방역의료체계도 종합적인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 단장은 “현재로서는 치명적이지 않고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관리 수준이 목표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이 단장은 “사망자 수도 감소 영역으로 들어왔지만 이

번 주까지를 정점 주가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더 크게 감소할 수 있다”며 “다만 위중증 환자는 정점이 지속될 수 있어서 다음 주까지도 정점 구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환기자



꽃 대궐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진 5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탐진강 하천 주변과 금곡사 도로변 왕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화창한 봄날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감점의 덫' 민주당 경선 승부 가른다... “누가 받나” 후보들 긴장

탈당경력자 25%감산...탕감·예외 적용 대상 '축각'
6·1 지방선거가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당 경력자나 현역 평가 결과 감점, 여성·청년 등의 가점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민주당이 확정된 가·감산 적용 기준을 놓고 예비후보자들이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공관위는 최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감산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가장 관심이 높은 탈당경력자는 당해 선거일 전 150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탈당한 자로, 25%의 감산을 받는다.

다만 직업상 이유나 당의 요구로 복당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산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적용 대상자들의 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복당한 인사들은 대선 기여도에 따라 25% 감산 적용 여부 결정된다.

민주당은 현재 지난해 대선투표로 통해 복당한 인사들의 대선 기여도 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하위 10% 정도만 25% 감산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상당수가 감점을 탕감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선출직공직자 평가하위 20%' 결과 20% 감산의 덫에 누가 포함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현직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 대한 평가를 마친 상태다.

광주 5개 구청장의 경우 김상호 광산구청장이 불출마하지만 평가를 이미 받은 상태다. 결국 김 청장이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명 중 1명이 감점 패널티를 받게 된다.

가산점도 관심이 쏠린다. 여성은 자신의 득표에 25% 가산을 최대로, 전·현직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역위원장 10%

가산을 받는다. 다만 해당 선거구 동일 공직수행 후보자는 가산이 없다. 중증장애인은 같은 기준에 따라 각각 25%와 10%의 가산을 받는다. 선거일 기준 청년은 ▲만 29세 이하 25% ▲만 30~35세 이하 20% ▲만 36~42세 15% ▲만 43~45세 이하 10% ▲전·현직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역위원장 10%의 가산을 받는다.

정치신인은 청년·여성·장애인과 경선하는 경우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은 10% 가산을, 그 외 신인은 20%의 가산이 적용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가·감산 세부 기준이 후보자 당락의 향배를 가르는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탈당경력자와 대선투표로 복당한 인사들의 감점·감산 탕감 여부가 최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남진기자

광주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14곳 184개 지점 안전성 '적합'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지역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14곳 184개 지점을 대상으로 비산석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대상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이며, 부지 경계선, 작업장 주변, 폐기물 반출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비산석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학교 8곳 97개 지점과 재개발·재건축사업장 등 6곳 87개 지점에서 진행됐다.

현재 광주시 초·중·고교 중 석면자재를 사용한 학교는 125개교로, 석면 해체·제거는 교육청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되며, 올해도 9개 학교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예정돼 있다.

최이슬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